

“K-뷰티 앞세워 쇼핑관광 미래 개척”

G마켓 등서 미용 인기상품 할인
관광상품 사전구매 혜택도 제공
항공권·숙박 등 최대 80% 저렴
한국여행 브이로그 랜선 투어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쇼핑관광 축제 ‘2022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이 13일 개막해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한국방문위원회가 주관하는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관광 비수기인 겨울에 외국인 관광객 방문을 촉진하고 관광수입을 높이기 위해 2011년부터 개최해 온 대표적인 쇼핑문화관광축제다. 올해는 향후 국가간 자유로운 여행교류가 재개됐을 때 쇼핑관광 목적지로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도록 온라인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2022년 코리아 그랜드 세일의 특별 주제는 ‘K-뷰티’다. 우선 행사기간 동안 ‘케이 뷰티 특별 할인전’을 진행한다. G마켓 글로벌, 글로벌 11번가 등 e-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인기 한국미용 상품을 할인 판매하고, 다양한 혜택을 담은 라이브 커머스도 진행한다.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등 국내 면세점에서는 구매금액별 적립금을 제공한다. 40여 국내 미용 브랜드들은 코리아그랜드세일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향후 여행 목적지로 한국을 최우선으로 선택하도록 ‘한국관광상품 사전구매 할인전’도



13일 개막한 ‘2022 코리아그랜드세일’을 대표하는 키 비주얼.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에 외국인 쇼핑관광을 위해 마련한 코리아그랜드세일은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콘텐츠와 이벤트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2022년의 축제 테마는 ‘K-뷰티’다(왼쪽 사진). 코리아그랜드세일이 온라인에 마련한 ‘트렌드 코리아’ 콘텐츠에서 소개한 한국의 겨울 스포츠 스키.

실시한다.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 체결국을 포함해 해외발 한국행 노선 항공권 할인, 숙박 최대 80% 할인, 300여개 식음료 매장 최대 20% 할인 등 한국관광상품을 미리 구매하는 외국인에게 다양한 할인을 제공한다.

온라인으로 한국 쇼핑문화관광을 간접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한식, 한국어, 한국공예 등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동영상 강의를 할인가격으로 제공하고 한국의 쇼핑 트렌드와 지역별 특색 있는 쇼핑관광 이야기를 담은 웹진도 코리아그랜드세일 사이트(en.koreagrandsale.co.kr)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주한 외국인 인플루언서가 진행하는 ‘랜선 투어’도 있다. 외국인 인플루언서가 각각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체험하고 안전하게 한국여행을 즐기는 모습을 브

이로그 영상으로 제작해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14일에 미국인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 데이브(Dave)가 한국 랜선 투어 영상을 공개하고, 이를 포함해 총 4편이 한국방문위원회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서울 명동서 ‘K-뷰티쇼’ 개막

한편, ‘2022 코리아그랜드세일’은 13일 오후 서울 명동에서 ‘K-뷰티 쇼’로 축제의 막을 올렸다. 방한관광의 상징적인 장소인 명동에서 주한 외국인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한국미용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명동의 한국미용 체험관 ‘뷰티 플레이’를 방문하면 한국 메이크업을 해보고 다양한 미용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케이팝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와 ‘스트릿우먼파이터’에 출연한 라치가 팀

등이 펼치는 축하공연도 온라인으로 공개했다. 공연은 한국방문위원회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하고, 오후 8시에는 유튜브 앱웨이브 채널에서도 공개했다. ‘2022 코리아그랜드세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리아그랜드세일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코리아그랜드세일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행사 종료 전까지 사이트 내 참여기업 모집 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경아 한국방문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코리아그랜드세일은 주요 한류 관광객인 2040 여성을 타깃으로 한 K-뷰티 콘텐츠와 온라인 중심의 쇼핑관광 프로젝션을 중심으로 준비했다”며 “전 세계 많은 외국인이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즐기고 향후 한국을 최우선 관광지로 방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코오롱스포츠, 제주에 친환경 매장 ‘숏숏리버스’ 오픈

재고 업사이클링 친환경 상품 판매
레인코트 등 대여 프로그램도 운영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이 전개하는 아웃도어 브랜드 코오롱스포츠가 제주 탑동에 ‘숏숏 리버스(숏숏 RE:BIRTH)’를 오픈했다.

코오롱스포츠는 그동안 ‘숏숏 618’, ‘코오롱스포츠 한남’을 통해 아웃도어의 오리진과 전시를 통한 아웃도어 공감을 이끌어냈다. 숏숏리버스는 ‘지속가능성’이라는 화두를 던지는 공간으로, 브랜드 경험을 극대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WASTE LESS, WEAR LONGER’이 슬로건이다. 코오롱스포츠의 모든 친환경 활동을 담고자 했다. 먼저, 친환경 업사이



제주 코오롱스포츠 ‘숏숏 리버스’의 고쳐입기 와펜 달기 공간. 사진제공 | 코오롱스포츠

클링 공간을 지향한다. 별도의 마감재를 최소화하고 건물 자체의 구조를 그대로 사용했다. 기존 건물의 역사를 이어나가고 버려지는 것에 새로운 시각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더한 것으로 테이블과 선반, 의자와 같은 집기류는 제주도에서 수거한 해양

폐기물을 활용해 제작했다.

판매 상품도 기존 코오롱스포츠 매장과 차별화했다. 코오롱스포츠가 자체적으로 업사이클링한 ‘코오롱스포츠 리버스’ 상품을 선보인다. 코오롱스포츠의 1~2년차 재고를 리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며, 모두 숏

숏리버스에서만 판매하는 익스클루시브 상품이다.

코오롱FnC의 업사이클링 패션 브랜드 ‘레코드’는 2층에 자리한다. 레코드는 코오롱FnC의 3년차 재고를 업사이클링해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이는 브랜드로, 코오롱FnC가 가진 재고 업사이클링 솔루션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 경험을 극대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기획 중이다. 가장 눈에겨볼 점은 ‘고쳐 입기’이다. ‘고쳐 입기’는 좋은 상품을 더 오래 사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코오롱스포츠는 와펜 부착과 같은 가벼운 고쳐 입기를 시작으로, 고객이 직접 참여하는 워크숍까지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코오롱스포츠 상품 대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변화무쌍한 제주도의 날씨를 감안해 코오롱스포츠 레인코트를 대여한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제주 해녀가 쓰던 빈집을 개조해 새로운 숙박시설로 꾸민 북촌포구집의 스파.

제주도 빈집서 숙박 시설로 하나투어 ‘북촌포구집’ 공개

리사이클링 프로젝트 ‘다움’ 첫 번째 상품

하나투어는 제주도의 빈집을 활용한 신개념 숙박상품 ‘다움’을 론칭했다.

하나투어와 빈집 재생 스타트업 다자요의 협업 프로젝트로, 새로운 숙박업소를 건설하는 대신 철거대상인 빈집을 리모델링해 숙박시설로 새롭게 꾸몄다. 먼저 ‘하나투어x다자요 리사이클링 프로젝트 [다움]’ 기획전을 통해 첫 번째 상품인 북촌포구집을 공개했다. 제주도 해녀가 살던 빈집을 리모델링한 공간으로 다려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한눈에 보이는 북촌 포구에 있는 독채 숙소다. 창고로 사용하던 별채를 프라이빗한 스파로 개조했고 물담과 낮은 지붕 등 제주다운 청취를 한껏 느끼며 힐링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하나투어 단독 판매로 하나투어닷컴 또는 하나투어 모바일 앱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하나투어는 북촌포구집에 이어 신풍리에 있는 ‘신풍농물집’, 수산리에 위치한 ‘수산미강집’ 등 다음의 새 프로젝트 속소를 차례로 선보일 예정이다. 김재범 기자

내일투어, 트래블버블 사이판 여행 특가전



트래블버블 여행지 사이판에서 골프투어를 즐길 수 있는 사이판 코랄 오션 리조트 골프 CC.

내일투어는 우리나라와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을 맺은 사이판 특가 상품을 마련했다. 2월 출발 상품으로 수요일 출발하는 3박4일과 토요일 출발 4박5일 상품이 있다. 사이판은

백신접종 완료자의 경우 한국 귀국시 10일 격리가 면제되며 여행사를 통해서만 여행이 가능하다. 현지 코디네이터가 픽업, 투어예약 등을 지원하며 한국 내일투어와의 24시간 비상연락망도 있다. 사이판은 한국 여행객에게 여행지원금 100달러와 300달러 상당의 PCR 검사비를 제공하고 코로나 확진 시 현지 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lopspe@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월 14일 (금) 음력: 12월 12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끼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용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문명이 과도하게 진보하면 퇴폐의 미를 좋아하게 되어 마침내 소박한 생명력을 잃고 만다. 개인에게 있어서는 외면만을 치장하고 내면적인 깊이를 잃고 만다. 매사 외견상의 화려하고 성대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		샘에서 흐르는 물줄기는 가냘프고 의지할 것이 못되나 나중에 강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올바르게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어둠과 답답하며 고뇌 속에 머물러 있는 때이니 경거망동을 삼가하라.		어떤 일에서 다른 일로 바뀌어지는 운기의 날이다. 그러나 개혁을 급격히 행하기는 어려우며 서두르면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계속함으로써 좋은 결과가 얻어질 것이다. 거래에서 큰 건수가 들어온다.		창고에 곡물이 산과 같이 쌓여 있는 운기이다. 대망을 품은 자는 먼저 힘을 쌓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 위험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비교적 안정된 때이므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의 계획을 세우고 착수하라.		부인이나 자식, 근처자로 인한 가정 내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밖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우선 가정 내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겠다. 가정 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면 가정의 화목하게 된다.		한낮의 암흑처럼 절정에 달해 있는 곳에서부터 서서히 쇠퇴의 그늘이 지므로 겉은 화려하고 활기가 넘치지만 내부에는 걱정이나 갈등, 비밀 등이 내포되어 있는 때이다. 이런 때는 매사 조치일판의 자세로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양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원숭이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닭	행운색: 검정 길방: 북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태연하게 움직이지 않는 산의 운기이다. 심사숙고해서 경계방동을 삼가야 할 때다. 경솔히 나아가면 산에 산이 중첩하는 난관에 부딪힌다. 계획은 곧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기를 기다리며 심신을 안정시키면 좋다. 선배와 상의하라.		작은 일은 뜻대로 되지만 큰일은 중도에서 좌절되는 경우가 있다. 표면은 좋아보여도 내면은 진실성이 없으며 현재 무슨 일이나 분명치 않아 단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때다. 거래상대가 이쪽을 의심하게 되니 잘 살펴서감이 중요하다.		사람의 턱과 같은 운기의 날이다. 사람은 턱을 움직이면서 음식물을 씹어 먹고 육신을 기른다. 이처럼 턱은 만물을 기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병이나 화또한 입을 통해 들어오고 나간다. 구설수나 과식으로 인한 소화불량을 주의하라.		무슨 일이나 엇갈리고 배반되어 잘 들어맞지가 않는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팔방이 꽉 막힌 상태이다. 당장은 힘들어도 차츰 나아지는 운세이나 자포자기에 빠져 협력자에게 배반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상대방과 완전히 의견과 방향을 달리하는 운기이다. 이럴 때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운다면 대립은 격렬해지고 결과가 나빠진다. 스스로 새로운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면 타인의 도움도 합쳐져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어떠한 위험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늘의 기운을 크게 모아 초목을 양육하는 산을 나타내는 운기이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해 충실한 방침을 세우고 착수할 때이다. 참고 기다리면 좋은 결실이 온다.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746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송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